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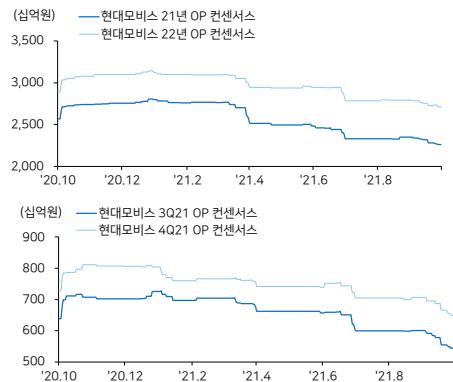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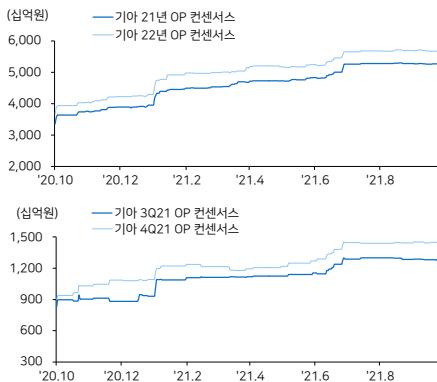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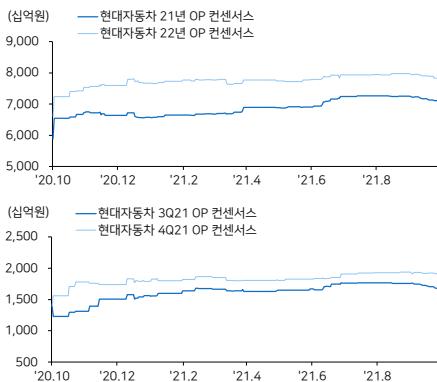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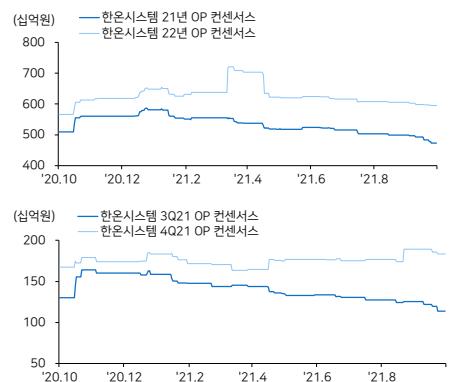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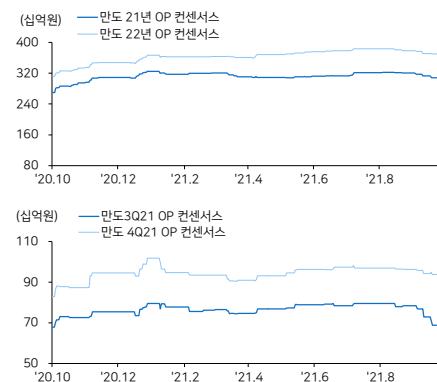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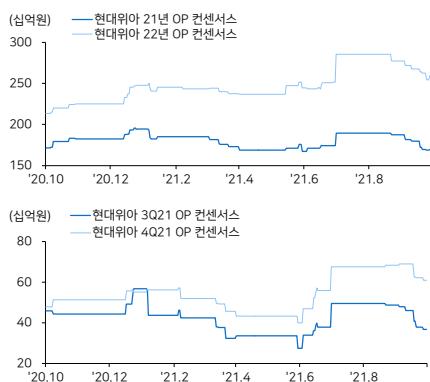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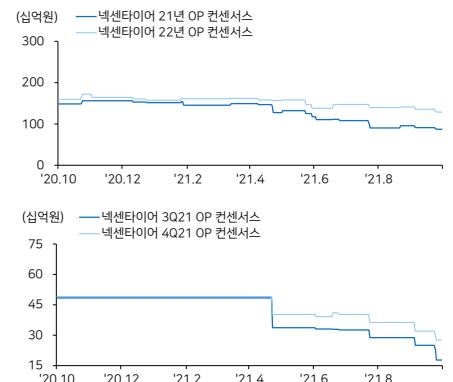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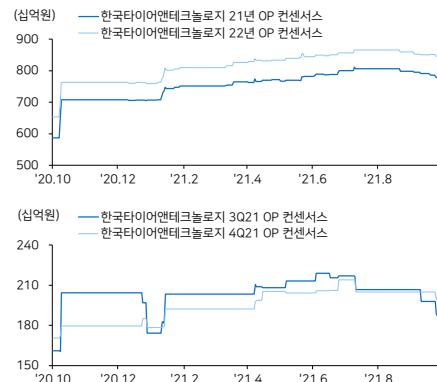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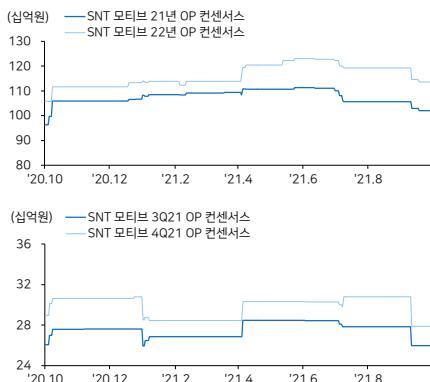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 티저 이미지 공개 (조선비즈)

현대차가 24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E-GMP 기반 대형 SUV 티저 이미지를 공개, '거주 공간'을 주제로 했던 아이오닉5의 실내 디자인보다 더 발전된 모습. 11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LA모터쇼에서 세븐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

<https://bit.ly/3BjrHTu>

SES "中·韓 리튬배터리 파일럿 공장 구축...현대차 공장 인근" (THE GURU)

SES CEO는 중국과 한국에 짓는 공장은 파일럿 사업이고, 최종 제품을 양산하는 공장은 배터리를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 근처에 구축할 예정이며, 제너럴모터스(GM)면 북미에, 현대차의 경우 한국일 수 있다고 언급.

<https://bit.ly/2ZPWhdW>

반도체 공급난 '일본차, 美·中 시장 판매량 '두자릿수 급감' (파이낸셜뉴스)

도요타, 혼다, 스바루, 마쓰다 등 4개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11만6,000대)한 30만대를 판매했다고 발표. 이 업체들의 판매량 감소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세인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EMQzf7>

Ford's BlueCruise driver-assist system rollout delayed to Q1 2022 (Teslarati)

포드의 ADAS 시스템 '블루크루즈'는 기존에 계획했던 '21년 출시를 늦춰 '22년 1분기 출시할 예정. F-150 Lightning의 15%에 블루크루즈를 탑재하여 출시할 계획이며, 미국 전역 중 사전 매핑(Mapping)된 '블루존'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q94hET>

현대차, 제네시스 GV60에 소나투스 '디지털 다이내믹스' 탑재 (THE GURU)

제네시스 GV60에 미국 자동차 SW 기업 '소나투스'의 디지털 플랫폼을 탑재.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SW의 OTA 업데이트 없이도 기능 추가 등 자동 최적화 등의 기능을 갖춘.

<https://bit.ly/3k2Bpu8>

"지금 투신 계약하면 인도받는데 1년 이상..." 현대차, 출고 지연 '극심' (뉴스위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현대자동차 일부 차종을 빼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부족에 비교적 잘 대응했던 현대차도 수급난 장기화에 점차 출고가 어려워지는 모습

<https://bit.ly/3wgvpVr>

반도체 수급난 끝?...인천항 신차 수출↑ 중고차 수출↑ (연합뉴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인천항을 통한 신차 수출이 감소한 반면 중고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월 인천항 수출 중고차는 yoy 37% 상승한 반면, 신차 수출량은 -13% 감소함.

<https://bit.ly/3q7UYVP>

VW CEO warns workers that Tesla's German factory will make cars more quickly (Business Insider)

VW CEO는 테슬라의 새로운 독일 공장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경고함. Tesla가 현재 VW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전기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 VW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https://bit.ly/3mKLnI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에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